



남양주 봉선사에서 열린 '2014인천아시안게임 선전 기원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불자선수들과 체육인불자연합회 관계자들이 경기에서의 선전을 기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우리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도록...”

## 체육인불자연합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선전 기원 템플스테이

“여기 모인 불자 선수들은 부처님을 따르는 불도전 같은 심신과 정진의 힘을 모아 열심히 훈련·정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마음이 여러 불자 선수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는 9월 19일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법회와 수련대회가 열렸다.

체육인불자연합회는 8월 23~24일 1박 2일간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에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선전 기원 템플스테이 및 법회'를 개최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불자 선수를 비롯해 용인대와 경남체고에 재학 중인 체육 유망주, 체육인불자연합회 임원들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레슬링 국가대표 김현우, 양궁국가대표 김우진, 이승윤 선수도 바쁜 훈련 일정에도 잠시 시간을 내 템플스테이와 법회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다.

첫 일정은 템플스테이 입재식. 모처럼 트레닝복을 벗고 템플스테이 복장으로 환복한 이들은 힘든 훈련으로 지친 심신을 내

려놓고 고즈넉한 산사가 전해주는 힐링에 몸과 마음을 맡겼다. 경내 설법전으로 자리를 옮긴 선수와 체육인불자연합회 임원들은 입재식에서 봉선사 주지 정수스님과 태릉선수촌 법당 주지 퇴휴스님 등의 격려를 받았다.

봉선사 주지 정수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6년 고행을, 달마 대사는 9년 면벽 끝에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렇게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행복과 기적을 맛볼 수 있다”면서 “침없이 달린 시간을 잠시 멈추고 쉬어라.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면 세상의 주인이 '나'임을 알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주인일 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 여러분은 우리의 희망이고 행복이다. 여러분의 손짓, 몸짓에 국민들은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해져야 국민들도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태릉선수촌 법당 주지 퇴휴스님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에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라며 “자신이 행복과 성공의 업을 쌓으면 행복해지고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불자선수들은 선전기원법회에서 아시안게임에서의 선전을 빌원했다.



템플스테이 둘째날 아침 진행된 숲속걷기명상.

이어 “불자 선수 여러분에게 전 국민과 불자들은 응원과 환호를 보낼 것”이라며 “여러분이 맑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격려했다.

본격적인 선전 기원 템플스테이의 시작. 봉선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정오스님(연수국장)은 선수와 임원들에게 “세상의 주인공은 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지도법사 정오스님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와 <WATCHING>이라는 두 책을 예로 들며 스스로의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 8월 23~24일 남양주 봉선사 불자 대표 선수·체육 꿈나무 참석 훈련 지친 선수들 마음 힐링 얻어 한마음으로 아시안 게임 선전 기원

일본인 의사 에모토 마모무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물의 결정이 인간의 쏟아내는 말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놔고, 김상운 MBC 앵커가 저술한 <WATCHING>은 만물이 사람의 생각을 읽고 변화하는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에 주목하고 인생의 모든 고민과 생각들을 바꾸어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오스님은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생각하고 말하는 에너지가 나의 몸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며 “마음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이 세상을 이룬 것이다. 스스

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평생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불교 대표 경전인 <반야심경>과 <화엄경> 약찬계를 불자 선수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며 마음의 작용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선전 기원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스님과의 차담, 새벽 예불, 108배, 숲속 걷기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특히 미래 국가대표 선수를 꿈꾸는 체육 꿈나무들에게도 좋은 체험이었다.

경남체고 2학년 하명찬(역도) 군은 “새벽에 일어나 예불에 참석하고 108배를 하는 것은 힘든 경험이었으나 자신을 추스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경남체고 1학년 이장환(레슬링) 군도 “원망, 미움과 같은 부정적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런던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김현우 선배를 만나게 돼 기뻐”고 소감을 밝혔다.

템플스테이는 마지막은 선수와 임원, 봉선사 사부대중이 참석한 선전기원법회였다. 법회 참가 대중은 모두 한마음으로 불자 선수들의 인천 아시안 게임 선전을 기원했다.

법회 증명법사로 나선 봉선사 능엄하림 학감 정원스님은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내면적 성장에도 신경을 쓸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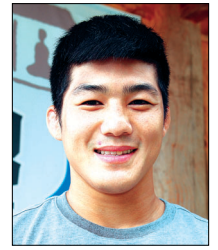
이와 함께 불자 선수들과 사부대중은 아시안 게임의 선전을 부처님께 발원하는 발원문을 함께 낭독했다. 이날 발원문은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 선수가 대표 낭독했다.

사부대중은 발원문에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걸어오신 진리의 발걸음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정진해 모두가 금빛 메달을 목에 걸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남양주 봉선사·신성민 기자

## [인터뷰] 아시안 게임 불자 국가 대표

### “산사에서 받은 기운으로 국민에게 기쁨을”

#### 김현우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



김현우 선수

2012년 런던올림픽 레슬링 경기장. 금메달을 목에 건 김현우 선수(사진)의 오른 쪽 눈두덩이는 피멍이 들어 부어올라있었다. 16강 경기에서 상대 선수 이마에 부딪쳐 부상을 입은 것. 압도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한 그는 결국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올림픽 금메달,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등 화려한 전적을 가진 김현우 선수지만 유독 아시안게임과는 인연이 없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아쉽게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한국 레슬링은 ‘노 골드’라는 수모를 당했다. 그래서 김현우 선수에게는 이번 아시안 게임이 ‘와신상담’의 무대다.

선전 기원 템플스테이 입재식에 참석한 김현우 선수는 “사찰을 찾으면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시합 전에는 긴장감과 스트레스로 많이 힘든데 사찰의 청아한 소리와 향 내음이 그런 것을 잊게 한다. 컨디션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독실한 불자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레 불자가 된 김현우 선수는 원주 성문사 신도이며,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도 자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의 ‘노 골드’ 수모를 갚겠다”면서 “현재 훈련량을 조절하고 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려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바쁜 훈련 일정 탓에 오랜만에 들린 사찰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 김현우 선수는 “훈련하느라 바빠 사찰에 갈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잠시 사찰에 들으니 기분이 좋다. 산사의 좋은 기운을 받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레슬링을 비인기종목이라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주시는 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 “불교명상, 경기전 마음 비우는 데 최고”

#### 김우진·이승윤 양궁 국가대표 선수



김우진 선수



이승윤 선수

한국 양궁은 세계 최강이다. 누구도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부정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누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올림픽과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김우진, 이승윤 선수는 한국 남자 양궁의 간판이다. 김우진 선수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모두 2관왕에 올랐고, 올해 세계양궁연맹 2차 월드컵에서는 단체전 금메달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승윤 선수는 강원체고 시절부터 ‘초고교급’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주자다. 올해 세계양궁연맹 2차 월드컵 남자 개인전 금메달과 지난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남자 개인전 금메달을 휩쓴 그는 치열한 대표 경쟁을 거쳐 태극마크를 달았다.

김우진과 이승윤 선수의 이 같은 실력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돈독한 불심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김우진 선수는 불교가 경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태릉선수촌 법당에서 매주 수요일 열리는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양궁은 높은 집중력을 요하는 스포츠입니다. 법회 조급이나마 달아드리겠습니다.”

에 참석하고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마음을 비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승윤 선수는 경기 전 사찰을 찾으면 압박감과 부담감을 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는 딱 잘라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경기 전 사찰과 법당을 찾으면 스스로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줄이는 데는 확실한 도움을 줍니다.”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의 목표는 이번에도 금메달을 독식하는 것이다. 한국은 2006년 도하,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연속으로 양궁의 전 종목 금메달을 석권했다. 여기에 컴파운드 종목이 추가돼 메달 수도 더 많아졌다. 김우진, 이승윤 선수는 양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선수에 대한 응원을 부탁했다.

# 43차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귀의삼보 하옵고,  
가을빛이 고운 9월의 운문사에서 43차 총동문회를 개최합니다. 모든 일에 卽事而眞하라는 가르침으로 포교와 수행에 전념하는 1850명의 선후배님들을 초대합니다. 고요하고 편안한 얼굴의 비로자나부처님이 그리운 때입니다. 모교인 운문사로 회귀하여 좋은 시간들을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 일시 불기2558년 음력 8월 20일 (양력 9월13일 오후 2시)
- 장소 운문사 선영당
- 안건 1. 장학금 전달 (필히 본인 참석)  
2. 모교 발전에 관한 건  
3. 기타
- 전화 (054) 372-8800 (운문사 종무소)  
(054) 744-9392, 010-9776-9390 (동문회장)

☺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장 금타 합장